광주FC 4경기 1골 '골가뭄'…탈꼴찌 공격축구에 달렸다

승격팀 광주, 개막 3연패 후 무승부로 간신히 1점
코로나 여파로 시즌 일정 줄어 매경기 사활걸어야

2020년 K리그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월에서야 시작된 2020년 K리그1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고 변수는 '축소 운영'이다. 관중 없이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병이나 수건을 개개인 별로 준비하는 등 이전과 다른 불편함이 피부로는 더 와 닿겠으나 이는 낯선 풍경 정도다.

하지만 38라운드로 우승팀과 다음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팀(3위 이내)을 가리고 강등팀을 결정하던 것들을 27경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차이다. 팀 간 홈&어웨이 2경기씩, 22라운드로 일단 파이널 A그룹과 B그룹이 결정된다. 우승을 다투는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는 일단 '22경기' 안에 승부를 봐야한다.

당연히 승리의 가치, 승점 1점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시즌이다. 현장에 있는 구성원 대부분이 "승점을 따낼 수 있을 때 최대한 따내야한다. 공격적인 마인드로 도전해야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득점이 필수"라고 외치고 있다.

당연하지만 절실하게 받아들여야하는 전제다. 골이 없으면, 성적도 없다. 순위표가 증명하고 있다.

4라운드까지 마친 현재, 우승후보로 꼽혔던 전북현대와 울산현대가 나란히 1, 2위를 달리고 있다. 새내기 사령탑 김남일 감독이 이끄는 성남이 초반 돌풍으로 3위에 올라 있는 것이 의외이나 포항 스틸러스와 강원FC(이상 승점7) 등이 기대대로 상위권에 올라 있다. 그리고, 하위권도 예상에서 크게 벗나가진 않았다.

올 시즌 1부로 돌아온 승격팀 광주FC가 최하위다. 개막 후 내리 3패를 당했던 광주는 4라운드에서 울산과 어렵사리 1-1로 비겨 승점 1점을 획득했다. 박진섭 감독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빈공'이다. K리그2 득점왕에 빛나는 펠레페가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롯, 4경기에서 1골에 그쳤다. 3연패 할 때는 내내 무득점이었다는 의미다.

'잔류왕'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출발한 인천유나이티드도 또 다시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다. 2무2패 승점 2점인데, 역시 4경기서 1골을 넣는 것에 그쳤다. 인천의 전력상 수비를 두껍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라 두둔하는 시선도 있으나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10위 부산(2무2패 승점 2)과 9위 대구FC(3무1패 승점 3)도 부진한 성적의 배경에는 무딘 창이 있다. 승격팀인 부산은 전체적인 내용은 박진감 넘치지만 결정력에서 매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유의 빠른 축구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대구FC 역시 지난해의 시원한 축포는 터지지 않아 승점 쌓기에 애를 먹고 있다.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8위 수원삼성(1승1무2패 승점 4)도 풀어 나가는 과정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나 마침표를 찍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득점왕 타가트의 발이 얼어붙은 것도 아쉽다.

선수들의 결정력 부족이야 감독 마음대로 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전체적인 기조는 예년과 달라져야한다는 조언들이 많이 나온다. 3경기 비겨도 3점, 1경기 이겨도 3점이다. 2승2패인 FC서울(승점 6점)이 3무1패의 대구(승점 3)의 승점보다 2배가 많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

한 축구인은 "약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비에 신경을 써야하나 그래도 승부를 걸 때는 과감해야한다"면서 "2라운드 성남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가 대표적이다. 지루한 내용 속에 0-0으로 끝났던 경기다. 홈 팀 성남은 물론 인천도 공격적으로 임했어야하는 매치업이다. 전북이나 울산을 상대로 맞물을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올해는 더더욱 공격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대한민국 체육 100년' 사진 전시회

6~12월 전국 순회 개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국민들에게 한국 체육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체육 100년'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오는 4일 서울 을지로4가 지하철 역사 내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전국 10개 시도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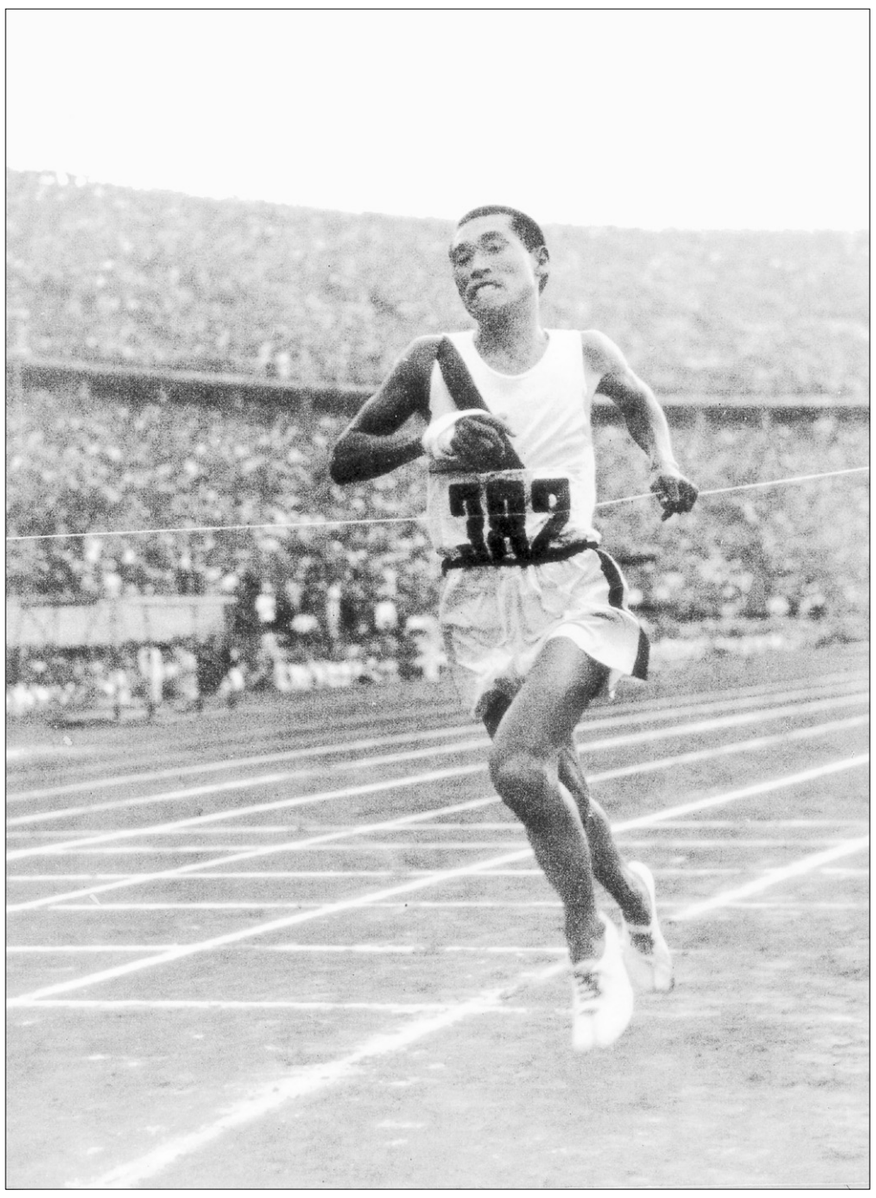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람객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고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등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936년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 우승, 1948년 런던올림픽에서의 대한민국 최초 올림픽 메달 획득(역도 김성집), 태릉선수촌 개촌,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등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스포츠 명장면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1920년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사진전을 구성하여 한국 체육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진 전시회가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와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올해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체육 100년의 역사를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7월초/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대한체육회 100주년 기념식(7월13일/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 한국체육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대한민국 체육 100년 심포지엄'(8월28일/서울 올림픽 파크텔)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대한민국 체육 100년'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1936년 보스톤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의 모습.

김연경, 흥국생명과 본격 협상 돌입

관건은 샐러리캡…김연경에 최대 6억5천까지 지급 가능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한국 복귀를 타진 중인 김연경(32)을 만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3일 "오늘 구단에서 김연경을 직접 만나 복귀 관련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프로배구 엑자시바시와 2년 계약이 끝난 김연경은 다양한 팀을 두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을 비롯해 복수의 팀이 러브콜을 보냈다.

김연경은 한국 복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V리그행이 급물살을 탔다. 김연경은 2013년 흥국생명에 임의탈퇴로 묶여 있어, 한국에 돌아오면 흥국생명으로만 복귀가 가능하다.

양 측은 이미 계약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예전 유럽 진출 시 있었던 구단과 선수와의 앙금은 사라진 상태다.

김연경이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지만 나타낸다면 큰 걸림돌은 없다. 한국배구연맹(KOVO)에 이달 30일까지 선수등록만 마치면 2020-21시즌에 뛰는 것이 가능하다.

변수는 샐러리캡이다. 여자부의 경우 최대 23억원을 쓸 수 있는데 이미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게 10억원을 쓴 흥국생명은 김연경에게 옵션 포함 최대 6억5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나머지 6억5000만원으로 나머지 선수들의 연봉 계약을 마쳐야 한다.

아직 선수단과 연봉 협상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연경이 복귀 의지만 표명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매듭이 풀릴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도 "계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의 복귀 의지"라며 "(과정에서)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계약이)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연경의 11년 만의 국내 코트 복귀가 점점 무르익고 있다.

'KLPGA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무관중 진행

오늘 개막, 고진영 · 김효주 · 김세영 등 135명 참가

제10회 롯데칸타타여자오픈 칸타타 WOMEN'S OPEN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4일부터 4일간 제주 롯데스카이힐 컨트리클럽에서 '제10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가 주최하고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엔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과 김세영 · 김효주를 포함한 135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4라운드로 마련돼 3라운드였던 지난 대회보다 변별력이 높아졌다.

총상금은 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원 늘었다. 우승자는 상금 1억6000만원과 3000만원 상당 시계를 부상으로 받는다.

롯데칠성음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관중 없이 대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회 기간 매일 클럽하우스를 방역하고 선수 · 캐디 발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은 기부 행사도 마련됐다. 롯데칠성음료는 10 · 18번 홀에 '칸타타 존'을 설치하고 골프공이 들어갈 때마다 100만원씩 최대 3000만원을 희망브리지에 기부할 계획이다.

대회는 SBS 골프 채널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선수와 관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 패럴림픽 합동 개 · 폐막식 검토"

일본 닛칸스포츠 보도

2020 도쿄올림픽 ·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개 · 폐막식을 합동으로 진행하는 등 간소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3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개 · 폐막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다.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됐다. 도쿄올림픽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8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24일부터 9월5일까지 열린다. 개막식은 개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공연이 펼쳐지는 중요한 행사지만 코로나19로 대회가 연기돼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닛칸스포츠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합동으로 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황희찬, 올 여름 잘츠부르크 떠나나

잔여계약기간 1년 남았지만 재계약 진전 없어

황희찬(24 · 잘츠부르크)이 올 시즌을 마치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팀을 옮길 전망이다.

크리스토프 프룬드 잘츠부르크 단장은 3일(이하 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매체 잘츠부르크24와의 인터뷰에서 "황희찬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아직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올 여름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1월부터 구단은 황희찬과 재계약 협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잘츠부르크에 입단한 황희찬은 2021년 6월 잘츠부르크와 계약이 종료된다.

황희찬은 잘츠부르크 이적 후 FC리퍼링(오스트리아)으로 임대를 떠나 1년 동안 뛰다가 잘츠부르크에 복귀했다. 지난 시즌에는 함부르크(독일)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올 시즌 잘츠부르크로 돌아왔다.

황희찬은 올 시즌 잘츠루브르크에서 모든 대회를 통틀어 13골, 18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런 황희찬에 대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을 비롯해 울버햄튼, 에버턴 등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영입 의사를 보였다.

오스트리아 현지에서는 "올 여름 이적 시장이 잘츠부르크가 황희찬의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의 이적을 진행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현지에서 황희찬의 현재 가치는 1000만유로(약 136억원)로 평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황희찬은 지난달 29일 열린 루스테나우와의 2019-20시즌 오스트리아컵 결승전에서 1도움을 올리면서 5-0 승리에 기여했다. 황희찬은 4일 오전 3시30분 라피드 비엔나와의 재개 후 첫 리그 경기에서 공격포인트에 도전한다.